

다산포럼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한국사)

여러 차례 감옥살이를 경험한 다산 정약용은 감옥살이의 고통에 대해 ‘옥중오고’(獄中五苦)란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이는 ‘형틀의 고통’, ‘토색질 당하는 고통’, ‘질병의 고통’, ‘춥고 배고픈 고통’, ‘오래 갇혀 있는 고통’을 말한다. 조선시대 감옥에는 당연히 요즘 같은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테니 그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산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형틀의 고통’ 중 대표적인 것은 목에 칼을 채우는 것과 곤장을 맞기 위해 형틀에 올라가는 것이다. 감옥의 아전들은 사형수와 같은 중죄인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칼을 작은 죄를 지은 죄수에게도 채웠다. 또 규정에도 없는 ‘못을 박은 곤장’을 쳐서 죄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했다. 그래서 죄수의 가족들은 형벌을 감경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전들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했다.

여기에 더해 질병의 고통이 감옥 안에서 함께 주어진다. 감옥의 불결함이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 낸다. 감옥 바닥에 있는 벧단은 썩어 심한 악취가 났고,

죄수에 대한 정조와 다산의 인권 존중

간수들은 벼룩 등 해충들이 득실거리려도 거의 치우지 않았다. 병든 죄수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 또한 해주지 않았다.

19세기 후반 조선 천주교의 전래를 기록한 달레(C. C. Dallet) 신부의 ‘한국 천주교회사’를 보면 책 앞부분에 조선 사회 전반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 기록 중 감옥에 간 천주교 신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감옥의 옥리(獄吏)들은 한 방에 천주교 신자들을 가득 몰아넣었다. 이들은 너무 뻘뻘하게 들어가 있어 다리를 뻗고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심문할 때는 고문을 함께 가했는데, 너무 심하게 매질을 하고 학대했다. 고문받는 과정에서 생김 상처로 인해 생긴 피와 고름은 전혀 치료를 해주지 않아 살이 금세 썩곤 했다. 이로 인해 역한 냄새는 더욱 견딜 수 없게 되고, 심한 경우 패스트징 질병이 생겨 감옥에 있던 죄수 여럿이 목숨을 잃곤 했다. 여기에 더해 죄수들에게 굶주림과 갈증은 더욱더 무서운 고통이었다. 이처럼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상처 치료는커녕 전염병까지 생기게 하여 사람들을 죽이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 유린이란 말인가!

그래서 정조는 즉위 직후 형구(刑具) 규격을 세밀하게 규정한 ‘흠휼전칙’(欽恤典則)을 만들었다. 또 형조의 소관 사무를 정리한 ‘추관지’(秋官志)를 편찬하게 했다. 정조는 옥리들이 5일에 한 번씩 감옥 안을 점

검하며 청소를 하게 했고, 죄인의 손과 발을 채우는 형구들을 항상 세척해 청결을 유지하게 했다. 그래야만 질병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에게는 약을 주어 감옥 안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없도록 했다.

다산 정약용은 ‘흠휼신서’(欽欵新書) 서문에서 “정조 시대에는 관찰사와 고을 수령들에게 명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감옥 행정을 잘못된 수령들에게 대한 징계를 해서 잘못된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정조가 죽고 난 순조 시대에는 감옥 행정을 너무나 잘못해 옥에 갇힌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하지 못해 1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의 모습을 보며 정조와 다산의 인권 존중과 교정 시설에 대한 인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다산의 ‘흠휼신서’ 마지막 문장은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흠휼(欽欵)이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가고 삼가는(欽欵) 것은 본디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하면 된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청춘특독

‘치유와 회복의 해’가 되길 바라며



김지민
동신대 한의예과 2학년

‘코로나19’가 일상을 정령했던 2020년이 참 빨리 지나갔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다면 연말에 설레는 기분으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신년 목표를 세우고, 새해 첫 날에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새해 소망이 이뤄지길 기도했겠지만 이번에는 집에서 아주 조용한 연말 연시를 보냈다. 이렇다 할 신년 목표도 세우지 못한 채 말이다.

2020년 전체를 돌아봐도 개인적으로 참 힘든 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간절히 바랐던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컸고, 언제부터냐 매일 우리는 재난 경보 문자에 무감각해지더니 결국 매사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됐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울함에 시달렸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었다. 이게 ‘코로나 블루’라는 건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무언가를 꼭 이루겠다고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는 단 한

가지, 작년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겠다. 새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울과 무기력을 떨쳐내야 했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냈던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이럴 때마다 책은 많은 도움을 준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 사람들의 수많은 감정적 경험에 신호-행동-보상 기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 참여를 고민하는 상황이 나에게 ‘두려움’이나 ‘귀찮음’의 신호로 작동하면, 나는 그 신호에 ‘선택 후보’ ‘불참’이라는 행동으로 반응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회피를 통한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바람직하지 않은 보상만을 추구한다면, 끝내 도전을 하지 못하는 ‘회피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책은 경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과 귀찮음을 느끼고 어떤 행동 반응을 보였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완벽히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포기하면서 더욱 우울해진 나 자신을 발견했고, 2020년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조금씩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중요에 ‘인일능지기백지(人一能之己百之) 인십능지기천지(人十能之己千之)’라는 구절이 있는데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백 번을,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천 번을 한다, 그렇게 하면 못 할 일이 없다

는 의미다. 적은 노력을 들여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했고,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은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포기할 때가 많았던 나에게 많은 가르침과 용기를 주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실패의 원인이 다름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활을 쓰는 것은 군자의 도리와 비슷하니, 정곡을 맞추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공자의 말을 교훈 삼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울과 나태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2020년이 정말 보람차고 좋은 해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이들에게 작년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을 것 같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지일 것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우울감에 계속 빠져 어서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살피며,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 보자.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2021년이 회복과 치유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 본다.

기고

장록습지, 홍수 방지 대책도 함께 세워야



류복현
전 광산문화원장

국토부가 황룡강 장록습지 지정을 반대했던 것은 해마다 우수기면 이 지역이 수해를 입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와 같은 현실 실정을 보완하겠다고며 국토부를 설득해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필자도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황룡강 장록습지는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인접 마을 주민들이 홍수 피해를 입는다. 올해도 황룡강 수위가 높아지는 바람에 송정 역사관을 비롯한 시가지 일부가 침수되었다. 1989년 대홍수 때는 광산구 전체가 황룡강과 극락강 범람으로 주저지는 물론이고 농경지가 침수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나주 영산포 독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광산 지역은 풍수해로 큰 변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황룡강 주변은 해마다 겪는 수해 피해 때문에 애초부터 국토부에서는 습지 지정을 반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습지 보전 사업도 수해 대책과 함께 진행해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사업이 되어야 한다. 습지 보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되 홍수 대책이 바로 따라 주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습지로 지정된 황룡강은 큰물이지만 수생 식물들로 인해 물의 흐름이 방해 받는다. 수로를 바로잡아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바꿔주지 않으면 상습적인 피해는 막을 수 없다.

지금의 황룡강 하상과 수생 식물들의 자생은 본래 형태가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 농경지 확보를 위해 본래의 강줄기를 제방 축조로 변화시키고 수리안전담으로 조성했다. 해방 이후에는 경제 성장과 함께 건축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광주에 인접한 극락강과 황룡강은 건축 자재인 골재 채취원으로서 한몫을 했다. 당시 중장비업자들은 돈벌이에 급급하여 무작위로 하상을 굴착하고 골재를 채취했다.

그런데 골재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굴착기로 마구잡이로 파헤친 하상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 버렸다. 이로 인해 본래 황룡강 바다보다 하상이 낮아지고 웅덩이나 굴곡진 지역들이 방지되면서 황

룡강의 모습은 뒤물리기 시작했다. 황룡강은 노령산맥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다. 장성군을 경유하여 흐르는 황룡강은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청정 지역으로, 1급수에 물고기들의 천국이었다. 한데 무분별한 골재 채취와 그로 인해 곳곳에 형성된 웅덩이에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하급수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강줄기가 인위적으로 변질되고 폐수가 유입되면서 황룡강 주변은 언제부터냐 수생 식물들이 제멋대로 자생하게 되었고 이런 식물들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해마다 수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년 큰 물이 지면 쓰레기 더미와 동물 시체가 떠내려 와서 여름철이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도 당국에선 청소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이제 장록습지는 국가 습지로 지정되었다. 습지가 지정되었다고 환경만 할 것이 아니라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수생 식물들을 옮겨 주고 동식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강물이 구불구불 곡선으로 흐르는 것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지 않고서는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社說

사면도 재난지원금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씨 사면과 4차 재난지원금 논란,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지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면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서 이를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는 것이다.

국정 지지를 하라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솔직히 인

정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수는 감소했지만 세대 수는 급증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집단면역 시기는 빠르게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밖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의 이유를 검찰 개혁의 견해차로 돌리면서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 문제와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어제는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국민의 뜻을 읽은 적절한 언급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늘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종다재해·업자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거나 또다시 ‘공정’을 강조하더라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솔직히 인

“더 버티기 어렵다” 유흥업소 이해는 가지만

광주 지역 유흥업소들이 정부의 ‘집합 금지’ 연장 조치를 거부하고 영업을 강행키로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는 어제 “방역 당국이 집합 금지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영업 재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광주 지역 유흥주점·클럽·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의 700여 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 재개 여부는 각 업주들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금까지 3개월 이상 문을 닫은 데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기간도 2개월에 달하는 만큼 처벌을 받더라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한달 고정 비용이 수백만 원씩 발생하지만, 그동안 받은 재난지원금은 620만 원으로 한 달 치 임대료도 안 된다

는 게 업주들의 호소다. 이 때문에 단속에 적발된 업소의 과태료를 회원들이 부담하면서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합 금지’로 인한 피해가 그 어느 업종보다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유흥업소 업계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영업 금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해도 그로 인한 피해까지 모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체계를 실력 행사로 흐트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정부 여당이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업소들은 당분간 고통을 감내하며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차체에 업종별 규제가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군사 정권 이후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세운 이 대표는 지난해 국내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화려하게 여의도에 복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총리 출신들이 대선을 앞두고 안정적 이미지로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하지만, 치열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 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리형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당권을 잡고 그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차기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 오는 3월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총리 징크스’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일찍이 군사 정권 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김종필 전 총리는 결국 ‘영원한 2인자’로 생을 마감했다. 대쪽 판사로 명망을 얻었던 이회창 전 총리는 세 차례나 도전했지만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았던 고건 전 총리, 교수 출신의 정운

찬 전 총리도 결국 2인자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최근에는 제1야당의 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총선 참패와 함께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총리 출신들이 대선을 앞두고 안정적 이미지로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하지만, 치열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 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리형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당권을 잡고 그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차기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 오는 3월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총리 징크스’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일찍이 군사 정권 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김종필 전 총리는 결국 ‘영원한 2인자’로 생을 마감했다. 대쪽 판사로 명망을 얻었던 이회창 전 총리는 세 차례나 도전했지만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았던 고건 전 총리, 교수 출신의 정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